

14 체언

[2004년 11월 1학년 학력평가 14번 문제]

40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 국어의 의문사에는 '누가, 언제, 어디, 무엇, 왜, 무슨, 어떻게' 등이 있는데, 이런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은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의문사 본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특정 감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① 영수야, 헤리는 어디 가고 없니?
- ②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 ③ 엄마, 왜 한 다리를 들고 서 있지?
- ④ 여러분, 누가 먼저 이 주제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 ⑤ 집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니?

[2006년 6월 3학년 평가원 14번 문제]

40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까.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2007년 4월 3학년 경기도교육청 11번 문제]

402.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무엇'이라는 대명사는 ㉠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나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 ① 화단에 있는 저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
- ② 배가 고프니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 ③ 남자는 무엇을 증언이라도 하듯 가다듬은 목소리를 냈다.
- ④ 꿈속에서 무엇에 쫓길 때처럼 다리가 제대로 놀지 않았다.
- ⑤ 그는 세간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서 있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사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가령 '새 물건이 있다.'에서 '물건'은 관형어인 '새'가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립 명사이다. 이와 달리 '헛것이 있다.'에서 '것'은 관형어인 '헛'이 생략되면 '것이 있다.'와 같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므로 의존 명사이다. 이처럼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며 조사와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의존 명사는 특정한 형태의 관형어를 요구하는 선행어 제약과, 특정 서술어나 격 조사와만 결합하는 후행어 제약이 있다. 다음 예문에서 (ㄱ)은 선행어 제약, (ㄴ)은 후행어 제약을 보여 준다.

(ㄱ) 여기 (은 / *오는 / *올 / *오던) 지가 오래되었다.

(ㄴ)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일어난 김에 일을 마무리하자.

우리는 네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ㄱ)에서 '지'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만 결합하므로 선행어가 제약된다. (ㄴ)에서 '수'는 주격 조사 '가'와, '줄'은 목적격 조사 '을'과, '김'은 부사격 조사 '에'와, '따름'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만 결합하므로 후행어가 제약된다. 이와 달리 '것'은 결합할 수 있는 격 조사의 제약이 없이 두루 사용된다. 의존 명사가 선행어 제약이나 후행어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존 명사가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예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의존 명사 중에는 '만큼'과 같이 동일한 형태가 조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개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 한다. 예를 들어 [A] '먹을 만큼 먹었다.'의 '만큼'은 관형어 '먹을'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지만, '너만큼 나도 할 수 있다.'의 '만큼'은 체언 '너' 뒤에 붙는 조사이다. 이때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2021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

40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ㄱ.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 ㄴ. 그들은 칭찬을 받을 만도 하다.
- ㄷ. 그를 만난 것은 해 질 무렵이다.
- ㄹ. 동생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 ㅁ. 포수는 호랑이를 산 채로 잡았다.

- ① ㄱ의 '바'는 목적격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있군.
- ② ㄴ의 '만'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만 올 수 있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있군.
- ③ ㄷ의 '무렵'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있군.
- ④ ㄹ의 '리'는 격 조사의 제약이 없이 두루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없군.
- ⑤ ㅁ의 '채'는 '-(으)ㄴ' 외에 다른 관형사형 어미도 올 수 있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없군.



2021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 **404.**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띄어쓰기가 옳은지 판단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문	판단 결과
① 노력한 <u>만큼</u> 대가를 얻는다.	×
② 나도 형 <u>만큼</u>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
③ 그 사실을 몰랐던 <u>만큼</u> 충격도 컸다.	○
④ 시간이 멈추기를 바랄 <u>만큼</u> 즐거웠다.	○
⑤ 그곳은 내 고향 <u>만큼</u> 아름답지는 않다.	○

2009학년도 수능 11번 문제] **405.**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 기>

㉠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 나는 ㉢ 그쪽에서 ㉣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이걸 ㉤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2010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 **406.** <보기>의 '어떤 체언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언들은 특정한 조사와만 결합한다.

- ① 그는 사소한 실수로 야기될지 모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 ② 그 투수는 무릎 부상의 악재를 딛고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 ③ 강연자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 ④ 그녀는 다가와 남자처럼 악수를 청했고, 나는 얼떨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 ⑤ 종갓집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2015년 9월 3학년 모의고사 A형 13번 문제] **40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술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

2012년 3월 3학년 모의고사 12번 문제] **408.**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인칭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화자인지, 청자인지, 화자와 청자 이외의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각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대명사로 나뉜다. 이 중에 삼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未知稱) 대명사, 부정칭(不定稱) 대명사, 재귀대명사가 포함된다. 미지칭 대명사는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할 때, 재귀대명사는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를 지칭할 때 쓰인다.

<보 기 2>

초인종이 울린다. “계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아 들 : ㉠ 누가 왔는지 ㉡ 제가 나가 볼게요. (현관으로 나가며) ㉢ 누구세요? (문을 열어 상대방을 확인한다.)
 우체부 : 택배 왔습니다.
 아 들 : (물건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할머니께서 ㉣ 당신이 손수 말리신 곶감을 보내셨네요. 아버지, 곶감 좀 맛보실래요?
 아버지 : ㉤ 내가 먼저 먹으렴. 난 이따가 먹을란다.

- ① ㉠ : 부정칭 대명사
- ② ㉡ : 일인칭 대명사
- ③ ㉢ : 미지칭 대명사
- ④ ㉣ : 재귀대명사
- ⑤ ㉤ : 이인칭 대명사

15 용언

409. 밑줄 친 말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07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

— <보 기> —
 우리말에서 용언은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미와 결합한다. 그런데 몇몇 동사의 경우 활용이 온전하지 못하여 일부 어미하고만 제한적으로 결합한다. 예를 들어 '데리다' 같은 말은 '데리고', '데려(데리+어)' 등으로는 활용하지만, '데리게', '데리면', '데리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 ① 그는 나에게 책을 빌려 달라고 말했다.
- ② 출발에 즈음하여 친구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 ③ 그녀는 가끔씩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
- ④ 그는 흥분해서 극단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
- ⑤ 이웃과 더불어 살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410.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잘못 말한 사람은?
 [2007년 3월 3학년 서울시교육청 11번 문제]

— <보 기> —

선생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있다'와 '없다'는 다른 용언과 달리 활용 방식이 특별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있다'와 '없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합시다.

▣ 어간과 어미의 결합 방식 ▣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 : ×

	㉠	㉡	㉢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 '-는'	감탄형 어미 '-구나'	청유형 어미 '-자'
동사	○	×	○
형용사	×	○	×

- ① 철현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② 영미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③ 동국 : ㉡로 보아 '없다'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④ 선경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⑤ 광민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411. <보기>를 통해 탐구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7년 9월 2학년 학력평가 10번 문제]

— <보 기> —

[A] 철수: 무슨 일이 이렇게 많대?
 영화: 그러게, 저걸 언제 다 하나?

[B] 철수: 영호 말로는 그 친구 아주 똑똑하대.
 영화: 나도 영호한테 들었어.

[C] 철수: 전에 보니 그 친구 말 참 잘하대.
 영화: 나도 본 적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 ① [A]의 '-대'에는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있다.
- ② [B]의 '-대'는 '-다고 해'의 준말로 볼 수 있다.
- ③ [B]의 '-대'는 남이 한 말의 진위를 판단할 때 쓰인다.
- ④ [C]의 '-대'는 '-더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C]의 '-대'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할 때 쓰인다.

412.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2007년 9월 3학년 평가원 11번 문제]

— <보 기> —

- 얘기를 들습니까? / 얘기를 들소?
- 의자에 앉아라. / 빨리 밥을 먹어라.
- 날씨가 덥다. / 날씨가 덥지. / 날씨가 덥네.
- 비가 그치겠다. / 비가 그치겠니? / 비가 그치겠구나!
-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413. <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7년 9월 3학년 평가원 12번 문제]

— <보 기> —

-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

(예문)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 **치르다** ㉠ (…이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

- ①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 **깔다** ㉡ (…이 …을 …에) 젓혀서 벌리다.
- ② (예문)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 **스치다** ㉢ (…이 …에) 세게 닿거나 마주치다.
- ③ (예문)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 **맡기다** ㉣ (…이 …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 ④ (예문) 형이 밥솥에서 밥을 찐다.
 → **푸다** ㉤ (…이 …에서) 어떤 것의 속에서 떠나다.
- ⑤ (예문)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 **여기다** ㉥ (…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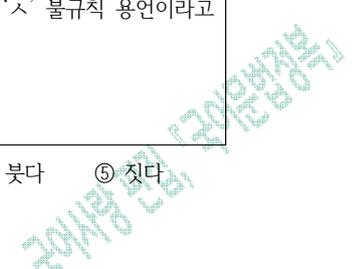
414.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09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

— <보 기> —

국어에서 용언(用言)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어간이 '스'로 끝나는 용언이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스'가 탈락하는 것을 '스'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 낫다: 낫고, 나아, 나으니, 나았다
- 짓다: 짓고, 저어, 저으니, 저었다

- ① 씻다 ② 잇다 ③ 굶다 ④ 붓다 ⑤ 짓다



[2008년 4월 3학년 경기도교육청 12번 문제]

415.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니다/는다'의 '쓰임 환경'을 탐구하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언어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던진다, 온다, 잔다 • 묻다, 운다, 만든다 • 웃으신다, 막으신다, 감으신다 •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
쓰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다 • (㉠) 뒤 • '르' 받침인 동사 어간 뒤 • (㉡) 뒤 ○-는다 • '르' 받침을 제외한 (㉢) 뒤

- | | | |
|---------------|---------|-------------|
| ㉠ | ㉡ | ㉢ |
| ①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어미 '으시'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 ②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피동사 |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 ③ 타동사 | 어미 '으시' | 피동사 |
| ④ 받침 없는 동사 어간 | 타동사 | 피동사 |
| ⑤ 타동사 | 피동사 | 받침 있는 동사 어간 |

[2008년 9월 3학년 평가원 11번 문제]

416.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동수는 책을 빌리(러 / 려고 / 고자) 도서관에 갔다.
 ㄴ. 신간 도서를 빌리(러 / *려고 / *고자) 도서관에 가자.
 ㄷ. 동수는 책을 빌리(*러 / 려고 / 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ㄹ. 영희는 그를 안 만나(*러 / 려고 / 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ㅁ.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 / 려고 / *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ㄱ과 ㄴ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
- ㄱ과 ㄷ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ㄱ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이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
- ㄱ과 ㅁ을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ㄷ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

[2009년 6월 2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

417. 다음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학습한 결과이다. ㉠~㉣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습 자료	* 옷에 단추를 달다. * 과일은 대부분 맛이 달다.		
문제 제기	'달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학습 결과	결합 방법	동사	형용사
	의도를 나타내는 '-려 한다'를 붙여본다.	○	×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를 붙여본다.	○	×
	청유형 종결어미 '-자'를 붙여본다.	×	○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를 붙여본다.	×	○
* ○ :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능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09년 10월 3학년 서울시교육청 11번 문제]

418.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1>

-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를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보 기2>

- ㄱ. 그곳에 모인 사람이 큰 웃음을 웃었다.
 ㄴ. 영희는 잠¹을 잠²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ㄷ.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ㄹ. 크게 웃음으로써 교실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었다.
- ㄱ의 '웃음'은 '큰'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 ㄴ의 '잠¹'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²'의 '-ㅁ'은 접미사이다.
 - ㄷ의 '잠'은 '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 ㄷ의 '잠'은 서술성이 없지만 ㄹ의 '웃음'은 서술성이 있다.
 - ㄹ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명사형 어미이다.

[2010년 4월 3학년 경기도교육청 11번 문제]

419.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1>

- 한 주체가 하는 두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 -고/고서 :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의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냄.
- -며/면서 :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냄.

<보기 2>

- ㄱ. 잔칫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 ㄴ. 친구 집에 가서 못 다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서 왔다.
 - ㄷ. 너무 아파서 줄곧 울며/울면서 왔다.
 - ㄹ. 아이들은 함께 놀고, 공부도 함께 하며, 잠도 함께 잔다.
- ① ㄱ의 '-고'는 두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 사용하는군.
 - ② ㄴ의 '-고서'에는 동작의 선후가 나타나는군.
 - ③ ㄱ, ㄴ의 '-고/고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군.
 - ④ ㄷ은 '-며'를 쓸 자리에 '-면서'를 쓰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군.
 - ⑤ ㄹ의 '-고'와 '-며'는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 모두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음.

[2010년 6월 1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

420.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아/어'가 붙어 활용할 때, **어간의 'ㅂ'이**
- A. 바뀌는 경우가 있다.
- ③ 어간에 '오'가 있고 어간이 1음절인 경우 → '오'로 바뀐다.
- ⑤ 그 외의 경우는 → '우'로 바뀐다.
- B.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기 2>

- ㄱ. 그들은 옷을 뒤집어 입고 있었다.
 - ㄴ.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청소를 했다.
 - ㄷ. 가을에는 단풍이 고와 경치가 좋다.
 - ㄹ. 그의 성실한 자세가 미더워 보였다.
 - ㅁ. 그녀는 옷을 얇게 입을 추임 보인다.
- ① ㄱ은 모음 어미 '-어' 앞에서 어간이 바뀌지 않았어.
 - ② ㄴ은 모음 어미 '-아' 앞에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야.
 - ③ ㄷ은 ③에 해당하므로, 'ㅂ'이 '오'로 바뀌는 경우야.
 - ④ ㄹ은 ⑤에 해당하므로, 'ㅂ'이 '우'로 바뀐 게 당연해.
 - ⑤ ㅁ은 ③에 해당하므로, 'ㅂ'이 '우'로 바뀐 것이 맞아.

[2011학년도 수능 11번 문제]

421.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누는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분류 절차>
- 각 용례에서 동사 '들다'의 의미를 확인함.
 -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 <용례>
- ㄱ. 감기가 들다. ㄴ. 가방을 들다.
 - ㄷ. 단풍이 들다. ㄹ. 고개를 들다.
 - ㅁ. 반기를 들다. ㅂ. 보험을 들다.

- | | |
|--------------|------------|
| A | B |
| ① ㄱ, ㄷ | ㄴ, ㄹ, ㅁ, ㅂ |
| ② ㄱ, ㄷ, ㅁ | ㄴ, ㄹ, ㅂ |
| ③ ㄱ, ㄷ, ㅂ | ㄴ, ㄹ, ㅁ |
| ④ ㄱ, ㄹ, ㅁ | ㄴ, ㄷ, ㅂ |
| ⑤ ㄱ, ㄷ, ㄹ, ㅂ | ㄴ, ㅁ |

[2011년 3월 3학년 서울시교육청 12번 문제]

422.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어에 나타나는 '-었-', '-았-', '-였-'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어제는 내내 공부를 하였다.
 - ㄴ. 나사를 세게 조였다.
 - ㄷ.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 ㄹ.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았고, 철수는 휴게실에서 음악을 들었다.
 - ㅁ. 그는 학생이었고, 뒤에 오는 부부는 그의 부모였다.
- ① ㄱ ~ ㅁ의 서술어에 나타난 '-었-', '-았-', '-였-' 속에는 모두 과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② ㄴ에서는 서술어의 기본형이 '조이다'이고, ㄷ에서는 '먹이다'이므로 두 경우 모두 '-었-'이 포함되어 있다.
 - ③ ㄱ과 ㄷ의 서술어에 나타난 '-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④ ㄹ로 보아, 어간 뒤에 '-았-'이 아니라 '-었-'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양성 모음이 쓰이지 않았을 때이다.
 - ⑤ ㅁ으로 보아 '-이었-'의 준말인 '-였-'은 '-이었-'을 쓸 때와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

[2011년 6월 2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

42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것은?

<보 기>

- 본용언은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고,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예) 사람들이 모두 가 버렸다. : '버렸다'는 '가다'의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뜻을 보충함.

- ① 영화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
- ② 철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 ③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왔다.
- ④ 힘이 드니 잠시 여기 있다 가자.
- ⑤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



42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

<관형사형 어미>

한 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관형사형 어미는 안겨 있는 문장의 서술어에 붙어 그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추측, 의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 '-는', '-을' 등이 있다.

<보기 2>

- ㄱ. 내가 지금 읽는 책은 춘향전이다.
- ㄴ. 이 사진 어제 찍은 거냐?
- ㄷ. 머리가 짧은 소녀가 수미야.
- ㄹ.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은 학습실로 가렴.

- ① ㄱ의 '-는'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구나.
- ② ㄴ과 ㄷ을 보니 '-은'은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상태도 나타내는구나.
- ③ ㄱ~ㄷ을 보니 '-는', '-은'은 동사 어간에는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이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구나.
- ④ ㄹ의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추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 ⑤ ㄹ의 '-을'은 '학교에 남아 있다'가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425.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 ㄷ.*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상냥하자 차분하다.
 -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먹자 공부해라./공부하자./공부할래?
 -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426.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서/-어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비가 와서 / *왔어서 길이 젖었다.
- ㄴ. 비가 오니까 / 왔으니까 길이 젖었을 거야.
- ㄷ.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니?
- ㄹ. 비가 오니까 / *와서 제가 우산을 살까요?
- ㅁ. 비가 오니까 / *와서 우산을 가져가라. / 가져가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과 ㄷ을 보니,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할 수 있군.
- ③ ㄷ과 ㄹ을 보니, 의문문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아서/-어서'를 사용할 수 없군.
- ④ ㄹ과 ㅁ을 보니,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군.

427. <보기>를 참고하여 연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선물을 사느라고 / *샀느라고 돈을 다 썼다.
- ㄴ. 눈이 그치거든 내가 {떠나라 / *떠난다}.
- ㄷ. 책을 읽고자 도서관에 {갔다 / *가라}.
- ㄹ. 나는 철수를 만나려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 ㅁ. *나는 철수를 만나려고 그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을 통해, '-느라고'는 특정 시제와의 결합에 제약이 따름을 알 수 있군.
- ② ㄴ을 통해, '-거든'이 사용되면 뒤 절에 평서형 종결어미의 사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군.
- ③ ㄷ을 통해, '-고자'가 사용되면 뒤 절에 명령형 종결어미의 사용이 제한됨을 알 수 있군.
- ④ ㄴ과 ㄷ을 보니, '-거든'과 '-고자'가 사용되면 뒤 절의 서술어에 추측의 의미가 더해짐을 알 수 있군.
- ⑤ ㄹ과 ㅁ을 보니, '-려고'를 사용하려면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를 일치시켜야 함을 알 수 있군.